

‘유쾌한 반란’ 전도사 김동연 아주대 총장

‘유쾌한 반란’의 전도사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59)이 청년들 속으로 들어가 젊은 세대와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호흡한 지 500여일이 지났다. 고졸 신화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잘나가던’ 그가 많은 자리를 마다

한 채 선택한 자리는 다름 아닌 청년들 곁이었다. 평소 김 총장이 주장해 온 어려운 환경이나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반란’이 ‘청년’과 가장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신이 세운 도전과제로 학점 취득… 파란학기제로 틀 깰 것”

【수원=장충식 기자】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김 총장과 아주대 학생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학생들은 청년 시절의 힘겨움을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김 총장에게 동화되면서 유쾌한 반란에 공감하게 됐고, 김 총장 역시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거절만 하던 외부 강연에 나서는 것도 김 총장에게 생긴 변화 중 하나인데, 외부 강연료를 학생들의 ‘SOS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강연료를 모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해 지금까지 5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열한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 역할을 하며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김 총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혜자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반란’을 꿈꿀 기회를 얻게 됐고, 김 총장은 건전한 반란을 일으킬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주동자가 되고 있다. 청년들 속에서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김 총장을 만나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나.

▲가진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를 많이 거쳤다. 국가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에 갚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결핍에서 나온 절실함이, 더 성숙하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내적 동기에서 나온 절실함이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가 공직생활을 하는 이유가 됐고, 어느 자리에 있든 사회 변화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아 하는 습관이 공직생활 중 큰 도움이 됐다.

—대학총장으로 오게 된 계기는.

▲여러 제의가 있었지만 물러난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 사양했다. 그러다가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 많이 힘든 청년들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문제의 현장에서 그들과 호흡하며 고민을 나누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게 됐다. 취임 후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지난해 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수립된 학교 발전계획인 ‘Ajou Great Turning’을 차근차근 행동에 옮기고 있다. ‘파란학기제’와 ‘AFTER YOU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유쾌한 반란’을 주창하고 있다.

▲‘반란’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억지로나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유쾌’하다. 크게 세 가지로 △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란’ △자기의 틀을 깨는 ‘자신에 대한 반란’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사회에 대한 반란’이다. 각각 남이 낸 문제, 내가 낸 문제, 사회가 낸 문제를 푸는 것이다. 대학사회는 학령인구가 줄고 재정적 어려움은 커지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틀을 깨는 자신에 대한 반란도 필요하다.

—올 1학기부터 파격적인 ‘파란학기제’를 시도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

▲파란학기제는 아주대만의 도전학기제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제시해 정규 과목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자기주도성이나 교육적 가치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목으로 승인해 학생별로 3~18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틀만 제시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그런 틀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도전을 용감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만들었다. ‘파란학기’는 아주대의 상징색인 ‘아주블루’에

청년들과 함께 호흡

고졸 신화 공직자 경험 바탕
젊은이들 건전한 반란 유도
강연료 모아 50여명에 장학금
印尼 대통령과도 철학 공감

서 파왔다. ‘알을 깬다’는 뜻의 파란(破卵)과 대학 교육에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의미도 담았다. 첫 파란학기에 120명의 학생이 42개 주제로 830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만들었고, 주제들이 ‘캄보디아 현지 창업’ ‘수화를 통한 청각장애인 심리상담’ ‘국제대회용 자동차 제작’ 등 기발하고 다양했다. 학생들은 기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평균 3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도 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을 쏟아본 경험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해 시작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해외연수 ‘AFTER YOU 프로그램’은.

▲‘AFTER YOU’는 ‘나보다 너 먼저’라는 뜻으로 배려의 의미가 담긴 말이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명문대학의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계층 이동이 원활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학업·외국어 성적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가정형편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참가학생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150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청년들 속으로 들어간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이 ‘유쾌한 반란’의 청년 버전 실천을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여명의 학생을 선발해 미국 미시간대학, 위싱턴대학, 존스홉킨스대학과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베이징이공대학 등 세계 최고 대학들에 파견한다. 그중 20%는 아주대가 아닌 다른 대학 학생들로 뽑는다. 올여름 프로그램에는 11개 타 대학에서 참가학생들이 선발됐다. ‘AFTER YOU’의 가치가 아주대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다른 해외연수와 차별화되도록 아주 고강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소요예산은 외부 인사들의 모금을 통해 전액 마련하고 있다. 고맙게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이 참여해주고 계신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우리도 놀랄 만큼 달려져 돌아오고, 그런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기부자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다.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아주대에서 토크콘서트를 함께 했다. 계기는 뭐였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빈민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도네시아 최초 서민 출신 대통령이다. ‘AFTER YOU’ 등 아주대가

일으키고 있는 ‘유쾌한 반란’의 철학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토크콘서트를 열자는 데 뜻을 함께해 바쁜 국빈방문 일정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 무한경쟁에 내몰려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도록 노력했다. 힘들더라도 긍정적 시각으로 꿈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펴야 한다.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도도 대통령은 리더의 조건으로 ‘잘 듣는 것’을 가장 강조했다. 좋은 소통의 첫걸음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컸다.

—아주대 학생들이 어떤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나.

▲총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브라운백 미팅은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하면서 학생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

■약력 △59세 △충북 음성 △국제대 법학과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석·박사 △행정고시 26회·입법고시 6회 △국회 예결위 입법조사관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현)

하는 자리다. 총장을 만나고 싶은 학생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다. ‘총장 북클럽’은 매달 한 권씩 책을 정해 신청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다 읽은 뒤 만나 자유 토론하는 모임이다. ‘총장 북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있다. 먼저 책을 읽고 맨 뒷장에 한 줄 소감을 달면 원하는 학생들이 그 책을 돌려 읽는 것이다. 그런 만남이 계속될수록 학생들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잠재됐던 ‘청년 정신’을 보게 된다. 아주대 학생들을 실력과 매력을 갖춘 젊은이들로 키우고 싶다. 실력은 기본이다. 실력에 더해 아주대가 추구하는 △도전 △배려

대학교육 다양한 실험

캄보디아 현지 창업 등 주제
다양한 과목 학생 스스로 설계
학업·외국어 일체 고려안한
소외계층 해외연수도 큰 기대

△상생의 가치가 체화된 매력 있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 진정성과 겸손까지 갖추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대 졸업생들이라면 누구나 ‘아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오늘을 힘들게 사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요즘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금의 어른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정해진 트랙을 강요하며 정답을 요구한다. 그런 틀을 만든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게임의 룰만 탓해서는 안 된다. 정답이 아닌 자기 답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치고 깨지면서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동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도 관심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모이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